

수  
기

# 일심단결된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2)

## 경탄을 자아내는 선거결과

선거장에서 받은 감동이 식기도 전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결과 발표 소식이 나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 100% 참가, 100% 찬성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 모든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

충격적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신들도 《유사적인 사변》, 《전세계에서 보기도문 사례》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에서 100%라는 말자체를 입에 올릴수가 없다.

리얼이 다르고 계급과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같은 당안에서도 계파에 따라 갈라지고 리합집산을 밥먹듯 하는 사회에서 100%라는 개념은 애초에 생각할수 없기 마련이다.

유권자의 50%만 참가해도 선거가 《평정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진행된듯이 묘사되고 《3삭등이 대통령》, 《4삭등이 국회의원》이란 비난을 받아야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나니 선거이후의 상황도 갈등과 모순의 폭발로 이어지고 폐한 쪽이 부정적 잡을 떠들며 선거결과를 인정하려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사회적혼란을 조성하다

못해 내전으로 번쳐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선거가 인민들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한다.

무엇보다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선거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충정의 발현으로 된다.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은 공화국을 세우시고 인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온갖 로고와 실험을 다 기울이시며 인민들에게 가장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안겨주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자로운 어버이이시다. 조국인민들은 주석님과 장군님의 품을 곧 조국의 품으로 여긴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품을 찾듯이 너도 나도 선거장으로 가고 주석님과 장군님을 영원토록 어버이로 모시는 충정심과 그분들의 유훈을 관철해가는 심정으로 선거에서 모두가 찬성의 한표를 바치는것이다.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인민정권과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는 곧 생활이며 생명이며 행복의 요람이다.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호주로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 밑에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준다. 정권이 강화되고 제도가 공고히 될 때 인민들자신의 존엄과 권리가 더욱 담보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게 된다. 그러니 정권을 받

는 기쁨과 긍지를 안고 참가하는것이다.

선출된 대의원후보자들 역시 모두가 인민의 대표자이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했으며 앞으로도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기들이 내세운 후보자들, 자기들을 대변할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선거가 《보이코트》할 유권자가 과연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 100% 참가, 100% 찬성이라는 선거결과를 당연지사인 것이다.

지금 서방의 일부 속세몰 어진자들이 공화국의 선거결과를 두고 《유권자의체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이색적인 당선》이니, 《체제선전용》이니, 《충성심을 유도시킨다》하기 위한것이니 하고 심사들린 소리를 하고있다.

나는 이번 선거의 목격자, 참가자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은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지 못해 모지름을 쓰는자들, 다시한번 세계를 향해 통창흔을 부른 공화국의 영상을 화려게 해보려고 안달이 난 자들의 못된 속심의 발로라고 단죄하게 된다.

이번 선거결과를 그대로 《이색》이 아니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인 공화국의 본색이고 본래를 명백히 보여준것이다. 공화국의 민주주의야말로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가장 진정한 민주주의임을 실증한것이다.

력설적으로는 서방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철저히 99%인

인민대중을 외면하고 1% 가진자들만을 위한 가짜민주주의이며 《돈만 있으면 누가의 오로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의 진면모와 선거제도의 반동성을 스스로 드러낸것의 다름아니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번 선거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공화국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로 된다. 돌아보면 이번 선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도발소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첨예한 속에서 진행되였다고 할수 있다.

미국은 공화국의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적인 《키리출브》, 《독수리》복합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나왔는데 미국의 고위정책들이 있었장서서 《사악한 곳》, 《악의 나라》 등을 부르짖고 그 무는 《유엔인권보고서》라는것을 내들리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한편으로는 《북극권사태》설을 퍼뜨리며 《북사회의 혼란》과 《변화》를 유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고 한치의 흔들림도 몰랐다. 선거전기간 최대의 정치적인일이 보장되고 고도의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그 어떤 《소요》나 무질서란 찾아볼수조차 없었다.

해외로 들려오는것은 하나같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들어가는 조국인민들의 고결한 충정에 대한 소식이었다.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로력적선물

을 마련하려는 드높은 열의 속에 강성국가건설장들에 세차게 휘몰아치는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소리,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문명의 선경들에서 울려 퍼지는 행복한 웃음소리, 기쁨과 랑만의 노래소리뿐이었다.

찬란을 자아내는 조국소식들은 미제의 전쟁소동을 짓눌렀고 《금번사태》와 《변화》광상을 물거품되게 했다. 돈으로 살수도 없고 강요로 꾸며낼수도 없는 경축의 선거분위기에 그토록 요란하던 《북인권》소동의 북풍도 여지없이 깨여지고말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성과적진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이룩된 귀중한 결정체였다. 새봄과 더불어 내 조국의 선거장들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은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조국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메아리였다.

이 불멸의 화폭에서 온 거레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일심단결을 이룬 공화국이야말로 겨레의 참조국임을 다시금 새겼다. 이인위천이 현실로 꽃피는 인민공화국에 민족의 미래와 조국통일이 있음도 확신했다.

조국에서의 선거를 보며 공화국의 위상과 참모습을 새겨안은 나는 내 조국이 약속하는 젊음으로 끝없이 비약하며 무궁토록 혼연일체의 화폭만을 펼치리라 믿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재중동포 김정인 (글)

건강을 회복하고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었다.

일터로 떠나는 노동자 류정에는 임원기간의 100여일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실생활로 체험한 감동깊은 나날들이었다고 하면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한몸 다 바쳐갈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 고구려의 무사가 된 심정으로

평양시 청춘거리의 풍치수려한 곳에 위치한 메아리사격관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개건되어 얼마전부터 봉사령 시작하였다.

위치부터가 명당자리인 메아리사격관은 어디를 돌아보아도 감탄을 자아낸다. 솜이 우거진 야산기슭을 따라 여러동의 봉사건물들이 계단식으로 조화롭게 들어앉았는데 마치 현대적이며 아담한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

메아리사격관의 실내 및 야외사격장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2층에 있는 30m실내 활쏘기장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이곳에 가보면 진 짜수림 속에서 활을 쏘는 그림을 받을수 있게 랑영벽은 통나무장식으로 부각되어있고 정면벽은 진짜 통나무로 되어있다. 목표판이 붙어있는 배경판은 푸른 수풀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면 원시림속에 있는 귀를집에 들어온것 같다고 말하고있다.

이곳 봉사원들은 권총사격장이나 보총사격장보다 활쏘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고있다. 아마도 활쏘기는 우리 민족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기때문인지...

우리 민족의 활쏘기력사는 수천년을 거슬러올라간다. 옛날 다른 민족들로부터 《활 잘 쏘는 민족》이라 불리울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활을 잘 만들고 활쏘기로 유명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활쏘기에 뛰여났던 사실이나 고구려벽화에 말을 타고 달려며 뒤돌아 활을 쏘는 무사들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활쏘기솜씨를 쉽게 접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대까지만 해도 곳곳에 활쏘기장이 있었고 동네마다 활터가 마련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활을 쏠수 있었다고 한다.

민족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았는가 활쏘기장을 찾는 군로자들은 그 옛날 상무기풍으로 강대했던 고구려의 무사들이 된 심정으로 마냥 멋들어진 자세로 활을 쏘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특-특-》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살들이 파격을 향해 날아가 목표판에 박힌다.

《활쏘기는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화살이 파격을 빗나갑니다.》

봉사원이 설명하는 활쏘기 방법을 보면 발끝에 힘을 주고 가슴을 좌우로 넓게 펴고 허리를 곧추 세운 다음 힘

을 다해 활시위를 당겨야 한다는것이다. 결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보기만큼 만만치 않다.

활시위를 당겨보았더니 웬걸, 있는 힘껏 당기는데 팔이 부들부들 떨리었다. 활소기를 자주 하면 자세를 바로잡아주기때문에 좋고 활시위를 당길 때 팔약근을 조여주기때문에 치질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또 정신운동이다보니 치매방지에도 좋고 카로리스모가 커서 비만 예방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한다.

원래 메아리사격관에는 활쏘기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훌륭히 개건되면서 새로 꾸려졌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2월 메아리사격관을 찾아주시어 이곳 30m실내 활쏘기장도 돌아보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이런 활쏘기장을 아이들의 야영소에도 하나씩 꾸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이제 여러 야영소에도 활쏘기장이 꾸려지게 된다. 여기 메아리사격관 활쏘기장만이 아니라 야영소들에 꾸려지게 될 활쏘기장들에서 파격을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며 선조들의 상무기풍에 어린 민족의 자랑스런 락사도 새기고 체력도 단련해갈 청소년들의 모습은 얼마나 화열에 넘치고 랑만적일것인가.

본사기자



## 개성시인민병원에서 전신 50%의 3도화상환자 완치

뜻밖의 화상으로 사경에 처하였던 처녀노동자가 100여일만에 개성시인민병원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소생완치되어 얼마전에 퇴원하였다.

지난해 11월말 전신 50%의

3도화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생명은 경각에 다달았다.

병원에서는 긴급의사협의회를 소집하고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었다.

의료일군들은 20여일만에 드디어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켰으며 화상중독을 제거하고 피부이식에 들어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병원일군들과 종업원들, 인민보안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시

안의 각계층 사람들이 친형제가 되어 자기의 피와 살을 환자에게 바치였다.

피부이식수술후에도 환자는 여러차례 중태에 빠지군 하였으나 이곳 의료일군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극한 정성, 혈육의 정에 의하여

얼마전 개학을 앞두고 고급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들이 새 교과서를 한아름 안고 집에 왔다. 기뻐했다는듯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딸과 대학에 다니는 조카에게 저마끔 아들이 가져온 새 교과서들을 펼쳐들었다. 아마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에 따라 달라진 교과서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교과서내용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어. 야, 나도 이 교과서들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았으면...》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서수준이 굉장히 높네...》

《우리야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첫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아니냐.》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를 들여다보던 나에게는 으쓱해하는 아들의 말이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게 될 첫 고급중학교 학생들!

두해전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로 전환할때 대한 법령을 채택한데 이어 올해 4월 1일부

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집행하게 된것이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육성에서 근본문제다 나선다. 그러자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춘 교과서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사업의 기본수단인것만큼 그 내용과 서술방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

라 학교교육의 질과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한 교육강령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작성되였다고 한다. 이 교육강령에는 세계선진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를 적극 계발시켜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는 문제 등이 다 밝혀져있다.

문득 취체질에서 만났던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라스 학교 2학년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몇 학생들만이 아닌 학습의 모든 학생들이 어른들도 하기 힘든 네자리

수의 곱하기를 순간에 암산으로 계산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던것이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김명심담임교원은 학생들스스로가 그 묘리를 터득하여 생 각해내도록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였을뿐이라고 말해주었다.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강성 조선의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여러차례

에 걸쳐 새 교과서작성사업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교육내용과 교육방법개선을 위한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참으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가 가지는 의의는 단순한 학제를 1년 늘이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교육부 문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로 된다는데 있다.

생각할수록 류다른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새 학년도이다.

이번 새 학년도야말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이 집행되는 뜻깊은 계기로 될것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인제대 군에 의거하여 최첨단들과전으로 실현하려는 기상과 의지를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영숙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 평양제1중학교에서 —

## 해외동포들의 《정든 집》 — 평양호텔



이역땅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을 방문할 때마다 즐겨찾는 《정든 집》이 있다.

평양의 중심부 대동강가에 자리잡고있는 평양호텔이다.

1961년 8월에 세워진 이 호텔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각국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속소를 평양호텔로 정하군 한다. 하여 사람들속에서는 《평양호텔이 재일동포들의 《정용호텔》로 불리우군 한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재일학생대표단, 국공상가극단을 비롯하여 매해 수천명의 재일동포들이 우리 평양호텔에 들군 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고있습니다.》

평양호텔 영점과 부원 한순범(55살)이 하는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재일동포대표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호텔 직원들 모두가 떨쳐나 환영사업을 진행하며 체류일정을 마치고 돌아

갈 때에는 자기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공연도 보여주군 한다고 한다.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이 조국을 찾을 때마다 살뜰히 대해주고 보살펴주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에서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정과 친절에 온통 한 편안한 마음을 느끼군 한다.

호텔의 사명에 맞게 침실과 식사실, 기념품매대, 커피점, 동식식사실, 상점, 편의봉사망들이 갖추어진 평양호텔에서 재일동포들이 즐겨찾는 곳은 2012년 새로 문을 연 전망대식당과 전망대커피점이다.

대동강의 풍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고 밤이면 야경도 즐길수 있는 전망대식당에서는 민족음식을 기본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들을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봉사하고있다.

특히 김치와 토장국은 그들에게 조국의 향취를 한껏 느끼게 하여주는 인기음식으로 되고있다.

전망대커피점을 찾는 손님들은 《이곳의 커피맛은 매우 독특하고 좋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커피를 맛보았지만 여기보다 못하다.》는 호평을 하고있다.

평양호텔을 자주 찾는 동포들은 이곳 종업원들과 한가죽

처럼 친숙하게 지내고있다.

호텔의 조리과에서 일하는 김광석은 《우리가 바라보는 동포들이 자기 집에서 하는것보다 더 맛있게 해드리는것입니다. 조국땅에서 근심걱정없이 사는 우리들이 일본파괴들의 탄압을 박차고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동포들을 위해 성의껏 봉사해드리는것은 응당한 도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곳 종업원들은 특히 재일조선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기뻐하여 절로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특식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와 그들에게 안겨준다

고 한다.

평양호텔은 공화국에서 역사가 오랜 호텔중의 하나이다.

재일동포들이 평양호텔을 즐겨찾는 리유에 대해 한순범 영점과 부원은 《단치 오랜 전통과 높은 봉사기술만이 아니다. 동포들을 위한 마음, 이역땅에서도 조선민족의 넋을 지켜나가는 재일동포들과의 혈연적紐帶를 이어가려는 진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해외동포들의 《정든 집》—평양호텔로는 오늘날도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